

나의 꿈, 나의 길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특허심판원 디자인분야 수석심판장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권혁중

I. 시작의 변(辯)

원래 고시와는 무관하게 대학과정을 보낸 이방인이 졸지에 얻어낸 합격이라서, 내겐 가슴 뭉클한 이야기거리가 없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 학형(學兄)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오늘날은 날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꾸밈없이 바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의 영원한 채찍으로서의 구실도 할 것이다.

사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나의 수험준비 기간을 숙명으로 치장하고 정진해왔었다. 나는 늘 내가 가야할 길이 고시합격에 있다고 믿었기에 죽을 힘을 다하여 게으른 몸뚱이는 합격의 문턱으로 채찍질해 왔던 것이다. 그러한 것이 나를 발빠른 합격의 길로 인도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이 갈등 속에서 꽃피웠고 비전공자가 변신으로 거둔 승리였기에 남다른 고통이 숨겨져 있었음도 물론이다. 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돌이켜 보고 싶다.

II. 갈등과 변신

일찍부터 부모님 슬하를 떠나 서울의 수도물을 마셔온 나의 성장배경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원초적인 배경을 이룬다. 워낙 강원도 촌놈이 가져야 했던 순수하고 다만 서울에서 홀로 떨어져서 익숙해져야 했던 눈치는 항상 평행선상에 있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이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위기의 상태로 나는 몰아치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情)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늘 목말라하고 이는 어느새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천박한 글재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에서 문학(영문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어찌보면 이러한 배경에 숨겨진 자아를 찾기 위한 자연스런 몸부림이었던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글 읽기를 좋아했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늘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늘 부족했다. 아니 어찌보면(작가에 의해 조작된) 허구의 뒷모습엔 나의 복제품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미 한계를 잉태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의 이러한 정신적인 혼돈에 불을 지른 것이 현실적인 갈등이었다. 대학 졸업을 맞으면서 '롬펜'의 생활을 계속하기에는 경제적 및 여러 여건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당시의 갈등을 낱알이 나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고시를 선택하고 또 그 길로 달음박질치게 되는 것이 차선(次善)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길이었다는 듯이 발빠르게 나를 변신시키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지만 좀처럼 적성에 맞지 않은 뿐 아니라 나는 주체할 만한 장애에 대한 자신도 없었다. 세 군데의 직장에서 도합 석달에도 못미치는 출근 기록을 가졌었다면 그 때의 방향은 충분히 짐작될 것이다. 일시적인 취직은 그저 현실도피용으로 그치곤 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고시가 내마음에 닿을 내리게 된 것이다. 세 분야(사시, 행시, 외시) 중 어느 길로 갈 것인가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나는 이미 고시를 위한 준비 속에서 내 모습을 찾아나서고 있었다.

'88년 늦은 봄, 나는 행시 1차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Ⅲ.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처음으로 행시(行試)에 관련된 과목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신림동 고시촌으로 택했다. 모든 과목이 낯설긴 했으나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취직 준비를 한답시고 기웃거렸던 경제학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뚜렷한 체계가 잡혀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경제학 실력은 일천하나마 나중에 2차준비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어쨌거나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스물일곱에 전공을 제쳐두고 딱딱한 사회과학 서적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이왕 시작한 것이니 일찍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나를 사정없이 채찍질해 왔다. 신림동의 구석진 공방에서 피어나는 젊음이 녹슬어 가는 듯한 퀘퀘한 곰팡이 냄새와 시계춌침의 날렵한 움직임은 늘 내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해 왔다. 미이라의 형상을 한 듯한 신림동 터주대감들의 창백한 물골이 이따금 고시초년병인 내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했다. 아! 더구나 환장하겠는 것은 주변에 수없이 널려있는 고시원의 불빛들이 밤새도록 꺼질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새벽 한 두시를 넘기는 것은 다반사이고 아침에도 다섯시 반을 넘겨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당시의 내 처지에서는 정말 귀신들의 소굴에 뛰어든 기분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고시 초년병으로서의 이러한 주관적인 상황규정(狀況規定) 덕택에 하루 최소한 열여섯시간 이상을 책상앞에서 버틸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최종합격하기까지 단 한 달도 그 정도의 공부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은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제32회 행시 1차를 두달여 남겨두고 시작한 고시에의 입문이지만 당시의 공부수준은 내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

음은 물론이고 비록 실패하긴 했을지라도 1차 성적(80.5)이 주는 일말의 가능성은 나의 수험 준비과정의 훌륭한 버팀목이 되기에 충분했다.

32회의 1차 실패 후, 또다시 갈등과 번민 속에서 취직자리를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고시를 저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 나는 나의 길이 고시에 있음을 알았고 또한 그곳이 결코 높지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나는 게으르고 흐트러진 몸뚱이를 힘차게 합격의 길로 끌어 당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취직과의 갈등 속에 허덕이면서도 학원강의를 통해 행시과목의 전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나갔다. 이 시기에 1차과목 전부와 2차 주요과목(행정법, 경제학, 행정학)에 대한 기초가 착실히 다져졌다. 당시부터 신림동에 개원된 동방고시학원과 태학관은 비전공자인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 대부분의 기합격자(既合格者)가 강조하고 있듯이 강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百讀以不如一聽).

또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차합격 이전에 적어도 굵직한 중요과목의 기본적인 체계정도는 세워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89년 2월 이후부터는 33회 1차준비를 위해 주변의 모든 생활을 단순화 시켜나갔다. 천주교 신자로서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 외출을 삼갔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공부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독서실만을 별도로 이용했다. 숙식하던 고시원의 방에서도 가끔씩 책상의 재배치를 시도함으로써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기다듬기도 했다. 공부 안되고 집중력이 분산되면 가끔 주변 영화관을 기웃거리거나 샤워를 즐기는 여유도 잊지 않았지만 결코 술잔을 기울이거나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과목을 각각 보름씩 할당하고 다시 한주일씩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도를 꾸리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취침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1차준비의 턱달 동안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민법총칙은 항상 법전을 곁에 두고 박윤직교과서와 송희성문제집, 권용우문제집으로 체크해 나갔으며, 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헌법은 권영성교과서와 민경식문제집으로 정리했는데, 특히 요약이 필요한 부분(헌법이론 파트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sub-note했고 조문(條文)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국사는 기출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 행정학은 2차대비와 병행해서 폭넓게 정리해 나갔다. 1차준비의 방법론으로는 여러 견해가 제기될 수 있지만, 나는 늘 요약정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러한 방법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그러한 노력이 시험 하루 이틀 전에 전과목을 빠뜨림없이 훑어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기억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33회 1차 시험은 녹초가 되어버린 몸을 피로회복제로 버티면서 무사히 마쳤다.

1차 발표이 결과는 기대했던 바대로 합격이었고, 1차 시험 이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던 결과 고시초년병으로서 2차점수 50점대를 넘나드는 그런대로 만족스런 점수(과락없음)를 얻었다.

1차 시험 후 며칠지나서부터 곧 행정법 교과서를 잡을 수 있었고 강의(태학관 두달과정)을 통해 행정법 등을 안정적인 과목으로 다져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차시험 후 두 달여 기간은 특히 초년병일수록 그 다음해의 최종 합격의 절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설혹 그 기간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의 공부과정을 한층 여유있게 만든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어쨌든 이제 1차합격으로서 나도 진정한 고시준비생으로서의 자격을 얻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신나게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1차합격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최종합격 때의 그것보다 몇배 크다는 것은 결코 나만의 고백은 아닐 것이다.

IV. 이제 가야만 할 길

갈등과 변신의 우여곡절 속에서 고시에 발을 들이 밀고 처음으로 얻은 1차 합격이니 만큼 앞으로 일년 남짓한 기간을 결코 후회없이 보내야겠다는 각오가 헤이해지려는 마음을 악착같이 붙들어 매었다. 이왕 내가 시작했고 또 이제는 가야만 할 길이라면 가장 빨리 끝마쳐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어느새 고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숙명처럼 치장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길이요, 나의 꿈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8월말까지는 계속해서 행정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다소 엉겨주춤한 상태로 흘러 보냈다. 이 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의 고시반(기숙사)으로 공부 장소를 옮겼는데 친구들과 과의 오랜만의 만남이 화근이었다. 수개월만에 기울여 보는 술잔이 이제는 사 나홀이 멀다 하고 반복되었다. 한때 무척 곤혹스런 기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쌓여있었던 스트레스의 해소기간으로 치부해 버렸다. 10월 이후부터는 study group의 활동과 특강을 통해서서히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시준비과정에서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냉정하고 잔인해야겠다는 생각이든 것은 이 무렵이었다. 아무리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지만 사람인 이상 자기관리능력에는 누구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잔인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 임에는 틀림없다. 게으른 몸뚱이를 질질 끌고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무렵 나는 먼 길이긴 했지만 신림동 태학관까지 정지학을 수강하러 다니면서 고의적으로 하루의 확보시간을 빠듯하게 만들었고 여러사람과의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나를 반복되는 챗바퀴에 가둬두려고 애썼다. 밀고 당기는 자신과의 줄다리가 계속되는 동안 어느새 '89년의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90년의 해가 밝으면서부터 2차시험 때까지 7개월 남짓한 기간은 나 자신과의 철저한 투쟁이었다. 기숙사에서 6시 기상과 동시에 중앙도서관에 도착하면 밤 11시 조금 넘어 취침을 위해 기숙사로 되돌아 올 때까지의 시간들은 차곡 차곡 내 실력을 다져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간혹 짜증스럽고 마음이 헤이해지는 때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계획의 차질에까지는 크게 신경쓰려하지 않았고 주일에는 꼭 성당을 찾는 여유의 허세를 부려보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저녁 두 번씩 도서관을 왕복하면서 얻는 운동의 효과는 도서관 이용에 귀찮아지려는 유혹을 극복하기에 충분했다.

'90년 봄에 실시된 고시반의 사회학 특강이 끝나면서 미흡하나마 전과목에 대한 틀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제는 단권화내지 sub-note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우선, 행시준비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행정법은가능하면 전형적인 것들을 빼놓지 않으면서도 신이론(新異論)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부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학은 원래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기에 그동안 보아온 각종 교과서와 자료 및 학원강의 노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모범답안 등을 중심으로 sub-note(2권)했고 기타 경제신문과 자료(통계지수와 논문등)의 수집정리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행정학과 정책학, 그리고 정치학은 서로 연관시켜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먼저 행정학을 sbu-note했고 이어서 평소 전략과목으로 삼고 싶었던 정책학은 세부적인 것까지 축소 요약정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정치학은 한국정치론, 국제정치론, 정치사상사, 국가론 등을 요약 첨가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다.

사회학은 아마 수험기간중 가장 공을 들였던 과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모든 부분을 섭렵하기 위해 택할만한 기본서가 마땅치 않고 단권화 자체도 까다로운 까닭인 듯 싶다. 나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기본서(대략 아홉권 정도)를 세세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짜집기 했고 이승민(30회 수석)의 특강도 큰 도움을 주었다.

국민윤리는 사실 대개의 수험생이 소홀히 대하고 있으나 제한된 시간내에 훌륭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령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의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설 출판사의 교과서와 방영준특강, 백대균문제집, 고교참고서, 모범답안, 기타 잡지 등을 통해 빠뜨리지 않고 sub-note 하려고 노력했고 목차구성과 key-word의 요령있는 선택에도 유의했다.

전과목의 단권화내지 sub-note를 완성해 나갈 즈음 이미 날씨는 짜증스럽고 무더워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부터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몸살감기까지 자주 겹쳐 도서관에서 식사를 위해 기숙사를 찾는 것조차 힘겨워 졌다. 하는 수 없이 이 때부터 가능한한 체력의 보강도 노릴겸 학교 앞의 수준급 식당을 이용하면서 삼계탕등 영양식을 wmf기기로 했다.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기는 했으나 장학금과 집에서의 적극적 지원,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올해 낙방하면 더 커다란 경제적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핑계로 힘이 닿는한 경제적 투자는 아끼려 하지 않았다.

시험날짜가 두 세달 앞으로 임박해올 즈음부터 나는 중도포기해 버릴까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몇 번쯤 경험하는 경우이겠으나 특히 나와같이 그다지 튼튼한 체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초년병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급격히 떨어진 체력은 돌쩌치고 늘 상대적 열세에 있는 듯한 초조와 불안감은 수험생의 심신을 언제라도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웅덩이로 밀어 버릴만한 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마 내가 당시에 그냥 벌렁 누워버렸다면 지금 나는 이 글을 쓰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체면불구하고 슬리퍼에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중앙도서관을 이용했고 줄리움거나 진도가 느리면 언제라도 세면장에 가서 머리통을 흠뻑 적시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어차피 내가 갈 길이고 가고 싶은 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가야했기 때문이다.

나는 주변에서 중도포기한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그들의 경우 대부분이 힘에 부쳐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였다. 그러나 사실 아이 러니컬하게도 포기한 사람치고 자신의 생각보다 점수가 못나온 경우(비록 불합격이지만)는 별로 없으며 그들 대부분이 이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누가 고득점하리라고 믿었던 친구가 실혹 합격하더라도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았다. 시험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여기서 더욱 명백해진다. 설혹 준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결코 중도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공부량(회독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행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얼마만큼 자기것으로 만들었느냐와 함께 행시의 경우는 특히 전반적인 체제와 응용능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사시와 달리 꼭 공부량이 많은 노장이라고 해서 유리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여기에 그 이유의 일단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를 확인받기 위한 기회는 가장 무더운 8월 여름날 경원중학교에서 주어졌다. 개도 안걸린다는 여름독감에 혈관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체력의 열세로 고통을 겪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혼음을 아끼기 위해 그 동안 정리해 두었던 sub-note를 중심으로 마지막 날까지 큰 무리없이 보냈다. sub-note의 활용은 시험 전날 해당과목의 전분야를 빠짐없이 훑어 보는데 크게 유용했다. 특히 기억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순간에 시험 직전에 모든 부분을 섭렵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은 물론이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마지막날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함으로서 무척 당황(물론 시험은 치를 수 있었음)했었고 그 영향이 사회학과 정책학에 잇따른 파장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텅빈대지 않고 차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3차 시험은 현행제도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듯하다. 다소 초조감 속에서 면접을 치르긴 했지만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라서인지 크게 긴장되지는 않았었다.

최종합격의 결과는 조용한 속에서도 잔잔한 내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흥분과 기쁨으로 치자면 1차나 2차합격 때 만큼 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야 내가 목표로 했던 고시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감격이 울음을 북받치게 했다.

갈등과 변신,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정진해 왔던 나의 길 나의 꿈이었기에...

V. 못다한 뒷 얘기

다소 짜임새가 없긴 하지만 수험준비 기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솔직히 옮겨 보려고 애 썼다. 누구에게 감동이나 교훈을 줄 만한 무게있는 자전적 일대기까지는 못되더라도 나름대로 어려웠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만족을 느낀다.

오늘날 이런 자리가 있게끔 아껴주시고 후의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 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이거니와 어려운 처지에서도 여러 도움을 준 친구들과 한 대(漢大) 고시반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공부에 여념이 없는 행시(行試)와 사시반(司試班)의 동기 및 선후배들의 빠른 합격도 빌고 싶다.

작년 늦가을 어느날엔가 도서관 3층에서 창밖을 기웃거리다가 앙상한 가지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빛바랜 잎새를 본적이 있다. 나는 그 마지막 가을 잎새를 나의 경우에 빗대어 보았었다. '두 해가 바뀌면 되겠지'하는 당돌한 각오하에 뛰어 들어 그 시간을 운명으로 치장하고 내달아 온 지금까지도 그 잎새는 내 기억 속에 살아 있다. 기억속의 그 잎새는 이제 다시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 나는 실력은 나보다 월등히 뛰어 나면서도 합격의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 왔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대개 몇 개월의 집중적인 공부에 실패한 경우였다.

한 번 땅에 떨어진 낙엽은 푸른 빛으로 살아나지 못한다. 단지 썩어 들어갈 뿐이다. 주어진 기회를 제 때에 활용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 생각한다.